

민주당, 텃밭서도 선거책임론 놓고 갈등 노출

연일 정청래 사퇴 촉구에 연임 불가론까지 대변인 “정, 거취문제 숙고중...기다려달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선거 책임론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갈등이 표출됐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지방선거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당의 뿌리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문해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광주 지도체에서조차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당권파인 황명성 최고위원은 본인의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 의지를 재차 밝히며 “우리 지도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 대표의 사퇴와 연임 포기를 압박했다.

또 정 대표의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도 정 대표의 발언을 비틀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 된다”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만 평가와 판단, 그리고 심판은 국민의 몫이라는 진리 또한 늘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선센터 회의장 밖에서도 시민 10여명이 ‘광주전남 분노한다 정청래를 거부한다’, ‘민주당 썩었다 도래나라 정청래’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즉각 반발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를 이유로 당을 흔들고 당원들의 선택보다 앞서 당의 방향을 정하려는 듯한 말과 행동은 결코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정 대표 책임론을 ‘당 흔들기’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민주당이 어려울수록 더 단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단결을 강조했다.

당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비당권파인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대표의 전당대회준비위 구성 전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정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 동반 사퇴도 요구했다. 정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대한 논쟁에서도 이런 갈등이 엿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전현희·김남희 의원도 1인 1표제의 보완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정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두 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원의 이름이 명시된 기사 제목을 인용하며 “1인 1표제는 민주당의 그 자체다. 민주당은 이를 지켜야 한다”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당 대표리만 당 의원들 이름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전에 적어도 소동하지 않아야 하지 않나”라며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당 대표의 공개적 표피 찍기 대상이 돼 배사 쏟아지는 옥설과 문자 폭

탄을 받았다”며 “존재하지 않는 ‘1인 1표제 훼손죄’를 만들어 자당 소속 의원들을 실명으로 공개 저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친청계 이성운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후에 당원 1인 1표제를 흔드는 세력이 있다”며 “당원들이 이뤄낸 당원 1인 1표제를 흔들고 부정하는 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정 대표를 엄호했다.

정 대표가 사퇴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얘기도 나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경청하셨고 속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표가) 충분한 입장을 정리하고 표명하실 때까지는 기다려 주시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메시지를 올린 데 대해서도 논쟁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수석대변인의 간담회에 배석한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적절한 시점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운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도, 우수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나서

작년 민원·제도개선 의견 6950건 발굴 성과 통합특별시 시대 민관 소통 역할 확대 논의

전남도가 생활속 불편사항과 정책 개선 의견을 발굴해 온 우수 민원메신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통합특별시 시대에 맞는 민관 소통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역대 최고 활동 실적 을 거둔 우수 민원메신저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원메신저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과 고충,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도민 참여형 소통 제도다.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도정 홍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전남 민원메신저들은 지난해 교통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관광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천950건의 민원과

제도개선 의견을 발굴·제언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도 정 참여도와 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민원메신저 32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견학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제주주요 지역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참여와 지역 관광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민원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다음 달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에 대비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민원메신저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통합특별시 시대에 걸맞은 민관 소통체계 구축과 제도 발전 방안, 주민 의견 수렴 기능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 주요 관광지에서는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활동도 펼쳤다. 참가자들은 전남의 우수 관광자원과 남도 문화의 매력을 알리며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전남 방문을 적극 유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의회 사무동 증축공사 준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의정지원 기반 확충

전남도의회(의장 김태균)가 의회 청사 부지 내에서 전남도의회 사무동 증축공사 준공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의정지원 공간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태균 의장과 도의원,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 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하고 의정지원체계 강화와 의회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했다.

이번 사업은 김태균 의장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과 의정활동 지원 가능 확대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전남도 또한 안정적인 의정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공감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준공된 사무동은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527㎡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버스 3대를 포함한 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으며, 3층에는 기존 청사와 연결되는 복도를 설치해 공간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이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채권신고 및 청산공고

본 회사는 2026년 5월 8일 주주사면결의로 해산결의하고 동년 5월 8일자로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나오니 본 회사 채권에 이익이 있는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만일 위 기한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주식회사 다원개발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499길12-421호(서평동, 골문빌딩오피스텔)
황산인 김기남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YouTube
▶ 구글이더기가 있으면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광남일보 iTV**
▶ 구독·좋아요·알림 설정까지!!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화 차츰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공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륜산 불회사

광고·시정문의 062)370-7077